



소수 합격 요소 : 사회 고위층 출신(재력가), 전과목 합격점

수정 횟수 / 수정 항목 :

「 애상의 잔재 」

애상¹(愛賞) : 사랑하고 그리는 마음.

애상²(哀傷) : 죽은 이를 그리고 슬퍼하는 마음.

“그간의 사랑에 답할게.”



📄 @I5pQb CM

단정한 회청색의 머리칼, 날이 선 눈매. 피부는 10년전과 비교했을때 혈색이 돌고 질어졌다. 여전히 오른팔은
걸어붙이고 다니는 습관이 있다. 직선으로 떨어지는 와이드 핏의 바지. 그 밑에는 로퍼를 신었다.

그리고 날개뼈에는... ..

이름

휴 버밀리온
Hue Vermilion

나이

만 27세

성별

여성

키 / 몸무게

172cm / 61kg

성격

#다정한 # 침착한 #명확해진 선

“ 이해해, 나도 포기할 순 없는 노릇이라. ”

남은 것을 지켜내기 위해 그는 다시 지팡이를 들어올렸다. 과거에 남았던 모호한 휴 버밀리온은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 방관의 탈을 벗어던진 그는 이타적이고, 다정했으며, 주변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사람들에게 기꺼이 헌신하고 도움을 내밀었으며, 항상 타인이 자신보다 우선위에 존재했다.

방관자였던 그는 시간이 지나 의지하고 따를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불안정하고 흔들리는 이들을 위로하고, 더 나아가 그들을 이끈다. 방황하고 기댈곳이 없는 이들의 굳건한 버팀목이 되어준다. 그런 행동의 근간은 단순히 과거에 대한 채무감이 아닌 선명한 애정이다. 파동같은 일렁임이 시간이 지나 거대한 파도가 되어 몰려오듯이 쏟아부은 마음이 천천히 쌓여 타인을 감화시킨다.

매 순간 내딛는 걸음은 빠르지 않아도 명확한 방향을 향해 나아간다. 격변하는 돌발 상황 속에서 쉬히 동요하지 않으며, 평정을 유지한다. 예민한 기질 탓에 직감이 뛰어나며, 상황의 흐름을 읽는 것에 능하다.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신뢰했다. 적어도 그가 틀린 선택을 하는 일은 이제껏 단 한번도 없었기 때문에. 그가 얼마나 많은 신중을 기하는지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다. 사람들이 그를 따르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지나버린 과거에 고개를 드는 그리움. 허나 미련에 흔들리는 일은 없다. 그는 이제 자신이 무엇을 마주해야 하는지 명확히 알고 있다. 흔들리는 삶 속에서 현실을 직시하지 않는다면 사랑하는 것들을 잃고야 만다는 사실을 이제 안다. 그러니, 그는 더이상 외면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 날은 무용해진지 오래다. 그러니 이제 받아들여야만 한다. 미온한 태도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현실과 더이상 예전처럼 머무를 수는 없다는 사실을.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은 채로 이루고자 하는 것을 거머쥔 수는 없는 노릇이니, 지키고 싶은 것이 있다면 때로는 애정하는 것에도 지팡이를 겨눠야 한다.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다.

혈통

순수 혈통

성인 기간 직업

배우

진영

불사조 기사단 수장

지팡이

버드나무 / 유니콘의 털 / 8.5 inch / 나긋나긋함

버드나무의 이상적인 주인은 부당함에도 불구하고 그 불안을 능히 숨기는 이들이다. 이들은 무언 마법을 사용하기 용이하며, 잠재력이 뛰어난 사람들을 선택한다.

특징

생일 | 10월 10일

탄생화 | 멜론(Melon) : 탐식

탄생석 | 투어멀린 캣츠아이 : 개안

배우계에 입단한지 채 2년이 되지 않아 순식간에 명성을 끌어모은 화제의 인물로, 영화 ‘셀레스티어’에 엑스트라로 출현한 것을 계기로 이름을 알리게 되었다. 영화계의 초신성, 빛어진 갈라테이아. 그를 칭하는 이명으로 알 수 있듯 그는 이제 어엿한 **유명인사**다.

6년 전 미술계의 은퇴를 발표했으나 여전히 그림을 그린다. 이번엔 순수하게 취미의 영역으로. 예전같이 다채로운 색채의 감각은 없지만, 명확한 빛의 대비와 유화로 표현되는 뚜렷한 입체감은 여전하다. 그는 더이상 자신의 **그림을 숨기지 않는다.**

나긋하고 부드러운 미성이 들려온다. 허나 흐리지 않고 선명하다. 그가 말하는 사소한 단어 하나 하나가 무엇이라고 믿고싶어지는걸까. 특유의 고저없고 차분한 목소리는 격앙된 감정을 잠재우고, 드리운 불안을 흩어낸다. 그가 말한다. *‘괜찮아, 잘나일 뿐이야.’* ...라고.

우디향을 감싸는 옅은 백목련 향. 끝에 감도는 미미한 이슬의 향음까지. 그 모든것이 한데 모이면 자연스럽게 아침 햇살의 향을 떠올리게 만든다. 부드러움과 화려함이 한데 뒤섞인 향은 자연스럽게 시선을 끌었다.

특기는 무언 마법. 화려하거나 눈에 띄는 특기는 아니지만 기질적으로 예민하고 섬세한 그와 이보다 더 어울리는 특성도 없다. 동시에 휴 버밀리온만큼 무언 마법의 강점을 잘 이용하는 이도 드물 것이다. 특유의 포커페이스와 결합한 무언은 그와 경이로운 시너지를 자랑한다.

불을 기피한다. 감히 이유를 묻는 이들은 없었으나, 그럼에도 묻는다면 *‘좋지 않은 기억이 떠올라서.’*라고 순순히 답한다. 이전처럼 자신에 대한 질문을 회피하지만은 않는다.

그간의 행적

1. **졸업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점점 그는 망가지기 시작했다. 강박감에 술에 의존하여 매일같은 하루를 보낸다. 반쯤 미쳐있는 그를 요양이라는 핑계로 사용인들 몇과 함께 휴를 **머글 세계로 격리**시킨다. 때는 스무살이었다.
2. **스물 하나,** 그의 소식이 특종으로 걸린다. 스테판 버밀리온의 전시회에서 작품을 박살낸 휴는 ‘녹의 간증’을 포함한 스테판의 모든 유명작들이 전부 자신의 그림을 빼앗은 것들이라고 폭로함과 동시에 스테판의 시기로 일어난 사고로 **더이상 색을 볼 수 없게 되었음**을 밝힌다. 근 1년간 차기작을 내지 않던 스테판의 공백기와 더불어 최근작들이 보였던 기묘한 색감을 단번에 설명하는 사유였다. 그 날을 계기로 **버밀리온의 명성은 땅에 처박혔고,** 휴는 **화가로서의 삶에 종지를 찍으며 자취를 감췄다.** 한동안은 말이다.

3. 이후 휴는 한동안 방황하며 **소식이 끊긴다**. 이윽고 **반년 후**, 영화 ‘셀레스티어’에 엑스트라로 출연한 것을 시작으로 점점 연기자로서 **미디어에 얼굴을 비추는 일이 많아졌다**. 2년도 되지 않아 휴는 대배우라는 명칭에 이름을 올릴 수 있게 되었다. 가히 경이로운 성장세였다.
4. 첫 주연을 맡은 영화 ‘영원의 간극’이 개봉한 날, 런던 레스터 스퀘어에서 벌어진 죽음을 먹는자들의 대테러로 **사랑하는 이들의 부고를 겪는다**. 한동안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헤메던 것도 잠시 갑자기 정신을 차리고 돌연 **불사조 기사단에 입단한다**. **스물 셋의 겨울**이었다.

텍스트 관계

비밀 설정

1. 순혈주의 가문 버밀리온. 휴의 아버지 잭은 다른 순혈 가문과의 결합으로 정략혼을 하여 태중에 휴를 가지게 되었으나 다른 이와 사랑에 빠져 얼마 가지 않아 이혼을 하게 된다. 잭은 이후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와 재혼을 하게 되고 그 아래에 아들을 낳게 되니 이는 휴의 배다른 남동생 스테판 버밀리온이다.

스테판이 태어나기 전 잭과 그의 아내는 마치 못해 휴를 데리고 있었다. 그것은 가족을 잘 알지 못하는 타인의 시야에서도 뚜렷하게 드러났다. 함께 걸을 때엔 뛰어가듯 걸어야 했던 휴와 달리 가지고 싶은 건 모두 손에 움켜쥐는 스테판의 곁에서는 더더욱 두드러지는 행색이었다.

그러다 스테판이 일곱 살, 휴가 여덟 살이 되던 해에 결국 잭 버밀리온 부부는 그의 금지옥엽 아들을 위하여 휴와의 별거를 선언했다. 본가와 가깝지도 않은 다른 지역에 위치한 작은 저택 하나. 잭은 어린

휴에게 사옹인 멧을 붙여주며 착한 아이가 되어야 한다는 말만을 남기고 떠났다. 이후 쪽 부재였다. 일년에 한두 번씩 저택의 관리를 위해 들르는 것이 고작이었다. 휴는 오히려 그것이 달가웠다. 마주쳐봐야 책의 뒤에서 머리를 빼꼼 내밀고 저를 향해 웃는 동생을 보는 게 전부였으니.

2. 휴는 미술에 재능이 있었다. 휴에게 크게 관심을 두고 있지 않은 책도 어렴풋이 알 수밖에 없을 정도로 거대한 재능. 어쩌다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은가. 그냥 지나치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눈길을 사로잡고야 마는 것들. 휴에게는 미술에 대한 재능이 그런 것이었다. 그렇게 3학년이 되던 해, 휴에게 자신이 비밀리온임을 입증하는 계기가 생긴다.

여느 때처럼 책이 휴의 저택에 들렀을 때였다. 보통 저택 안까지 살피지는 않던 책이었으나, 그날따라 흰 건물에 담쟁이 덩쿨이 뒤덮인 것도 같아서. 지극히 우연인 변수였다. 대문을 열고 들어간 책은 놀랄 수밖에 없었다. 입구부터 주방까지, 아니, 그보다 더 많이. 저택에 뿌리 내린 것은 담쟁이 덩쿨 따위가 아니었다. 식물이 뿌리를 내리고 장성하듯이 현관을 중심으로 퍼져나간 벽화들이 책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이었다. 책은 약 5분간 벌린 입을 다물지 못하였다. 천장에는 어떻게 닿았는가 하니, 부엌에 들어선 순간 미완의 그림과 사다리가 눈에 띄었다. 휴는 사다리 위에서 붓을 들고 있었다.

책은 휴를 보자마자 소리쳤다. 이것들을 다 네가 한 거냐? 고개를 돌린 휴는 이렇다 할 말 없이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다. 그 사건은 휴의 모든 것을 바꾸어놓았다. 어릴 적부터 그토록 갈망했던 아버지의 인정을 드디어 받을 수 있었으니까. 아버지는 집에 더 자주 들르고 더 많이 웃으셨다. 그 사실이 휴를 즐겁게 했다. 동시에 마음 속에서 끓어오르는 것의 정체를 깨닫는다. 가지각색의 야망, 결핍, 갈망 등이 뒤섞인 미상의 감정들. 탈피를 이룬 뱀처럼 휴는 이후 멈출 기세를 모르고 성장세를 보였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웃었다.

3. 스테판. 인생에 도움이 되질 않는 동생. 안타깝게도 스테판도—꼴에 비밀리온이라고—미술에 관심이 있었던 모양이다. 덜떨어진 재능을 가졌다는 게 문제였지만. 더 큰 문제는 후원자의 사랑이 스테판 쪽으로 완전히 쏠려있다는 것이었다. 책은 몇날 며칠을 휴의 저택에 방문하더니 휴에게 말했다. 너의 그림을 스테판의 이름으로 공표하고 싶다고. 너 또한 비밀리온으로서 출품을 하고 싶다면, 스테판의 그림을 네 이름으로 출품하게 해 주겠다고.

휴는 아버지의 뜻을 따랐다. 이전 처의 자식인 자신은 가주가 될 수 없을테니, 차라리 다음 가주가 될 동생을 뒷받침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었다. 그에게 필수적인 존재가 된다면 가족들은 나를 필요로 하게 될테니까. 이 구성원 사이에서, 이 가문에서 무언가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거니까. 자신의 이름 대신 동생의 이름으로 걸리는 그림들을 보면서도 휴는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아버지가 나를 떠나지 않게 하는 방법은 나를 필요로 하는 것 뿐이야. 어긋난 결심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4. 5학년이 되던 해, 사건이 터진다. 싸움을 원치 않던 그는 그간 동생의 패악을 견뎌왔으나, 휴의 업적을 등에 진 동생은 가문의 지원과 더불어 해가 지날수록 휴를 무시하고 오만방자해졌다. 당연한 일이었다.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던데, 휴를 대놓고 차별하는 어른들 밑에서 자랐으니까. 결국 스테판과 휴 사이의 갈등은 일련의 소문과 맞물려 결투로까지 번지게 되었다. 일련의 소문이란 언급했다시피 ‘녹의 간증’ 이 스테판의 그림이 아니라는 것. 당연하게도, 그 소문은 사실이였다.

스테판은 ‘스스로의 능력’이 폄하당한다는 사실에 악에 받쳐 다른 학생들이 보는 것은 신경도 않고 휴의 멍을 틀어쥐었다. 네가 퍼뜨린 소문이지? 그의 목소리가 크게 울리자 학생들이 주위로 모여들었다. 오가는 대화의 9할은 스테판의 기를 쓴 외침이었다. 옆친데 덮친 격으로 휴의 마지막 한마디는 소문에 불을 붙이는 결과를 초래했다.

“착각하지 마. 스테판, 너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어.”

그 말을 들은 스테판이 우발적으로 시전한 인센디오는 하필 휴의 얼굴을 향했다. 치명적인 부상을 입은 휴는 성 몽고 병원 신세를 질 수밖에 없었다. 흉이 남지는 않았지만, 태생적으로 눈이 약했던 탓에 열로 손상된 시신경은 완전히 회복시킬 수 없었다. 그 날부터 휴는 점점 색깔을 보지 못하게 된다. 이 사실은 지금까지 그 누구도 알지 못한다.

휴는 태생적으로 눈이 약하게 태어났다. 시신경의 문제로 햇빛에 자극을 크게 받아 앞을 보는데 지장이 생겨 그간 양산을 들고 다니거나 선글라스를 쓰고 다녔다. 그런 이유로 그림도 항상 그림자 아래에서 그려왔던 것. 늘 장막 너머 풍경만을 화폭에 담았다.

때문에 휴는 그림을 그리기 위해 그림자 아래에 머물러야 하는 자신과 현실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장막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림을 그릴 때마다 살아가는 세상에 이질감이 들어 걸돌기를 반복했다. 그래서 타인에게 다가갈 수 없었고, 자신 또한 타인을 쉬히 자신의 속내로 들이기가 어려웠던 것이다. 거기엔 그림에 얽혀있는 여러가지 이해관계가 크게 한 몫 했을 것이다.

성장 IF

1. 졸업 이후, 휴가 보는 세상의 채도는 핏기가 빠져나가듯 빠르게 흐려지기 시작한다. 이젠 하늘에 녹빛이 떠올라도 구름 낀 하늘과 분간하는 것이 어려울 지경이다. 그런 현실에 압박을 느끼던 휴는 정신적인 한계에 봉착한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그림을 그렸다. 그만둘 수 없었다. 이 일이 평생 내가 살아갈 삶을 정의했으니까. 이것만이 자신을 존재하게 만들고, 인정받게 만들어 주었으니까. 그렇기에 두려웠다. 그림을 그리지 못하게 된 자신은 무엇이 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서.

중압감과 스트레스, 의무감. 무거운 감정들에 짓눌리지 않기 위해 매일같이 술을 마셨다. 그림은 더이상 예전같지 않았다. 그림을 찢는 일은 부지기수였고, 과거 그려낸 그림들에 얽매어 그림을 완성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휴의 상태는 강박으로 망가져가고 있었다. 이윽고 스물, 아버지는 휴를 머글 세계로 보낸다. 휴식기를 빙자한 격리였다.

2. 가문과 멀어지니 오래간 무의식중에 떠돌던 사념이 형체를 갖추고 수면 위로 떠올랐다. 알고 있었다. 언젠가 더이상 그림을 그리지 못하는 때가 올 것이란 것 정도는. 그렇게 쓸모가 없어진 나는 무엇이 되는걸까. 이대로 사라지고 싶지 않은데... 그런 생각을 하며 휴는 창 밖을 바라보았다.

언젠가부터 그런 생각이 들었다. 빛 아래에선 그림을 그리지 못하니, 캔버스 앞에 설 때면 꼭 세상과 나 사이를 가르는 장막이 존재하는 것만 같다는 생각을. 단 한번도,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기분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 이 세계는 나에게 너무나 이질적인 곳이었다. 장막 너머, 관찰자로서 이루어지는 완전한 방임... 그 사이에 ‘나’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거지?

아, 문득 휴는 깨달았다. 스테판과 뒤바뀐 이후, 단 한번도 그림이 즐거웠던 적이 없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이미 세상의 채도를 잃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나를 존재하게 한다고 믿었던 재능이 이 세상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있었구나. 아버지의 애정, 가족들의 인정 따위에 목이 말라 나는 무엇을 포기하고 있었던걸까. 껍질처럼 단단히 에워싼 장막을 부수기 위해서 포기해야 할 것은 나 자신이 아니었다.

휴는 오랜만에 흐렸던 머릿속이 맑아지는 기분을 느꼈다. 해야 할 일은 명확했다.

3. 스테판 버밀리온의 전시회가 개최되는 스물 하나. 휴 버밀리온은 깔끔한 정장을 꺼내입고 발걸음을 옮긴다. 오늘 내가 가는 곳은 스테판 버밀리온의 전시회가 아니다. 오늘에서야 비로소, 나는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으리라.

전시회의 문을 열고 들어선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와 카메라 셔터가 터져나온다. 눈을 찌르는 강한 빛에 시야가 흐려진다. 아랑곳하지 않고 걸음을 옮긴다. 휴를 발견한 스테판의 얼굴이 일그러진다. 그의 표정을 읽은 사람들은 그의 시선을 따라 고개를 돌린다. 시선 끝에는 정갈한 차림의 휴 버밀리온이 있다.

휴 버밀리온은 스테판을 지나쳐 뒤에 걸린 그림을 향한다. 그림이 담긴 액자를 벽에서 떼어내고, 그대로 벽을 향해 휘두른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액자가 부서지기 시작한다. 휘두르는 손길은 멈추지 않는다. 세번, 네번, 다섯번... 한바탕 소란이 인다. ‘뭐하는 짓이야!’ 그 날과 비슷한 스테판의 고성과 함께 핵, 머리채를 잡아챈다. 허나 이번엔 순순히 당해주지 않는다. 스테판을 있는 힘껏 밀쳐낸다. 맥없이 밀려난 그가 벽에 부딪히며 액자의 파편들 사이로 나뿔그라진다.

받은 숨을 몰아쉬던 휴가 군중들을 향해 돌아본다. 흐트러진 머리와 상반되게 그의 눈은 빛을 받아 빛나고 있었다. 형용할 수 없는 감정이 벽차오르고 있었다. 그는 답지도 않은 충동에 기꺼이 몸을 맡겼다.

4. 그 날의 소란으로 폭로된 바는 다음과 같다. ‘녹의 간증’을 포함하여 스테판을 현재의 명성으로 이끈 모든 그림들은 사실 버밀리온의 장녀, 휴의 그림을 빼앗은 것이었다는 것. 증거는 충분했다. 자신의 그림을 가장 잘 아는 것은 화가 본인이니. 어릴 적 벽화를 그려왔던 작은 저택의 사진을 그 자리에 있던 기자들에게 뿌렸다. 어릴 적 돌봐 주었던 사용인이 찍어두었던 사진들이었다. *‘휴, 이젠 네 것을 되찾아. 후회없는 삶을 살렴.’* 사진을 건네던 그의 목소리가 선명하다.

두번째, 스테판 버밀리온은 휴 버밀리온의 능력을 시기하여 그를 재기불능으로 만들었다. 오래간 숨겨둔 사실을 밝은 순간이었다. 과거, 스테판에게 입은 상해로 이젠 완전히 색을 볼 수 없게 되었다고. 한동안 차기작을 내지 않던 스테판의 공백기와 더불어, 최근작들이 보였던 기묘한 색감을 단번에 설명하는 사유였다. 그날 이후 휴는 자취를 감췄고 버밀리온의 명성은 바닥에 처박혔다.

허나 억압된 진실을 폭로한 대가도 존재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휴는 버밀리온에서 완전히 추방당했다. 그가 머물렀던 저택은 벽화들과 함께 불탔고, 저택이 있었던 부지는 혈값에 매매되었다. 버밀리온은 휴가 존재했던 모든 흔적들을 지우지 못해 이를 갈았다.

5. 이후 한동안 길거리를 방황했다. 머물곳이 없던 탓이었다. 그렇게 자취를 감춘지 두 달이 되었을 무렵, 벤치에서 대충 널브러져 자고 있던 휴는 낯선 차 안에서 눈을 뜬다. 납치였다. 아니, 묶여있진 않으니 납치는 아닌가… 휴는 몽롱한 정신으로 그냥 덩그러니 실려갔다. 한동안 또 술을 머리에 부어댄 탓에 제정신을 상실한 모양이었다. 질문을 할 의지도 없었다.

그렇게 차는 낯선 곳에 정차한다. 앞좌석에 탄 이들이 휴가 탄 뒷좌석을 열고는 소스라치게 놀란다. 아, 깜짝이야! 갇으면 말을 좀 하지 그랬어요! 멀거니 눈을 깜빡이며 휴가 대답한다. 아, 말해도 되는거였군요. 그럼 지금이라도 물어보겠습니다. 납치하시는 와중 실례지만 여긴 어딘지… 그러자 황당하다는듯이 쳐다보던 여자가 입을 연다. 납치 아닙니다. 깨웠는데 술에 꼴아 일어나질 않아서… 됐고, 당신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따라와요.

그들을 따라 저택에 들어서자 보이는건 어릴 적 보모역을 맡아주었던 휴튼 부부였다. 나의 것을 되찾으라고 말해주었던 사람들이기도 했다. 그들은 탄성을 지르며 휴를 끌어안았다. *아가씨, 세상에, 꼴이 다 이게 뭐람! 한참 찾았어요, 오, 멀린..*

이후 상황은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었다. 휴튼 부부는 그 사건 이후 사라진 자신을 찾기 위해 흥신소를 고용한 모양이었다. 키운 정 때문인지는 몰라도 휴튼 부부는 갈 곳이 없다면 자신의 저택에 머물러도 좋다고 말했다. 해야 할 일은 이제 천천히 찾아보자고, 더이상 색채를 보지 못하는 그를 독려하며.

6. 휴튼 부부가 거둬준 이후 돈이 되는 일이라면 뭐든지 했다. 서빙, 아르바이트... 생전 해보지도 않았던 노동들에 실수도 많았고, 사는 건 여전히 팍팍했지만 아무렴 어떤가 싶었다. 마냥 얹혀 살 수는 없지 않은가. 홀로 살 길을 찾아야만 했다.

그러던 어느날, 신문에 영화의 엑스트라를 구하는 글을 발견한다. 비중이 아주 없지는 않은지 보수도 나쁘지 않았다. 오디션 비용이 문제라면 문제였지만 그래도 그간 열심히 일했으니까. 그 정도는 충당할 수 있을테다.

운이 좋았는지 휴는 배역을 따내는데 성공했다. 한동안 휴는 바쁘게 촬영장을 오갔다. 시간 가는줄 모르고 촬영에 임했다. 큐 사인이 떨어지고 나면 휴의 눈에는 이채가 돌았다. 그 순간만큼은 암울한 현실이 잊혀지는 것만 같았다. 다른 삶을 연기하며 울고, 웃고, 외쳤다. 촬영이 끝나면 어딘지 가슴께를 간질이는 기분을 끌어안고 휴튼 가로 돌아갔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휴는 그 안에서 삶을 느꼈다. 연기를 할 때면 그간 멀리서 바라만 보았던 삶 속에 진정 존재함을 느꼈다. 휴가 살아가던 세계의 색채와 사람들이 살아가던 세상의 색채 사이의 이질감이 흐려지는 것을 느꼈다. 새로운 욕망이 고개를 들었다. 잿빛의 세계에서 유일하게 느낄 수 있는 색채. 억압된 감정을 터트리고, 내가 살아있음을 반증해주는 것. 이젠 캔버스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 인간의 감정을, 생을 그려내 보고 싶었다. 지금 이 순간이 엑스트라라는 배역에서 끝나질 않길 바랐다.

... ..그 날, 휴에게는 꿈이 생겼다.

7. 축약해 말하자면, 휴는 스물 셋의 나이에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입지를 확보했다. 휴의 열정을 엿본 촬영감독은 그를 마음에 들어했고, 마침 평론가들의 눈에도 띄어 호평을 얻어낸 덕이었다. 엑스트라로 출연했던 영화에서 말한 대사가 명대사로 유명해지기도 했다. 역시나 운이 좋았다. 그 날의 일을 기점으로 휴는 감독과 친분을 쌓아나갔다. 건너 건너 사람들을 소개받으며

입지를 넓히고, 닥치는대로 작품 활동을 이어갔다. 만연한 텃세에 치일 때도 적지 않았지만 상관 없었다. 늘 그랬듯 그러려니 하고 넘겨버리면 그만이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늘어갔다. 연기를 시작한지 2년만에 영화의 주역을 따내는 쾌거까지 이뤘다. 세간이 그를 영화계의 초신성이라 부르며 칭송했고, 휴의 팬들은 그의 별칭을 갈라테이아로 불었다.

휴튼 부부는 그를 자랑스러워 했다. 휴는 영화가 개봉하는 날, 꼭 함께 극장에 가자고 말했다. 그의 얼굴은 놀이공원에 가는 어린아이처럼 상기되어 있었다.

8. 1983년, 휴가 주역을 맡은 영화가 개봉한다. 설레는 마음으로 상영관에 앉아 송출되는 영화를 기다린다. 하지만 시간이 되자 흘러나온 것은 영화의 사운드가 아닌 폭발음이었다. 건물이 수차례 흔들린다.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울리고, 뒤이어 지독한 가스의 냄새가 후미를 친다.

머글 세계를 테러하던 죽음을 먹는자들의 소행이었다. 지팡이 끝에서 튀어나온 불티가 하필 가스배관에 옮겨 붙은 것인지, 아니면 애초에 영화관을 타겟으로 삼은 것인지는 알 수 없는 노릇이었으나 그 날의 테러로 휴튼 부부는 사망했다. 휴튼 씨는 무너지던 건물 잔해에 깔렸고, 휴튼 부인은 불 속에서 끝까지 휴를 끌어안고 버티다가 비로소 구조대가 보였을 때 의식을 잃었다. 상술했듯, 휴튼 부인은 끝내 의식을 되찾지 못했다.

러닝 IF

7학년 :

공개란에 서술했다시피 큰 모남없이 모든 캐릭터와 두루두루 호의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허나 그것과 상반되게 어딘가 이질감이 드는 그 녀석, 내지는 속내를 알 수 없어 다가가기 어려운 사람 정도의 이미지는 여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휴가 장막 너머에서 살아가며 느끼는 이질감도 한 몫 하겠으나, 버밀리온들에게 얹매어 그들의 심기를 거스르는 일을 최대한 지양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행동

양상으로 혈통 차별 등과 같이 예민한 사안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확고히 밝히지 않는 이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재능이란 것은 반드시 개인의 적성에 맞는 것이 아닙니다. 재능이었던 미술은 오히려 휴를 좀먹고 들어가며 스스로를 위태롭게 만들고 있죠. 7학년 기간을 보내며 **휴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그림이 유의미한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맞이하길 기대합니다.**

성인 :

죽음을 먹는자로 성장할 경우, 완전한 절망을 겪으며 그간 그랬던 것처럼 저항하지 않고 흐름을 따라 입단한 만큼 **공격적이고 체념한 기색의 행동 양상**을 보일 것 같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 또한 존재하지 않으며, 죽지 못해 살아가는 삶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반면 **불사조 기사단으로 성장할 경우**, 모든 것을 잃은 휴가 마지막으로 남은 사랑을 계기로 입단하게 되기에 7학년 시기의 **모호한 태도는 사라지고 명확한 선이 생기게 되며**, 과거 자신이 회피해 왔던 많은 차별과 타인의 고통들을 마주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인 기간 직업

배우

진영

불사조 기사단

진영 변경 가능 여부

○

진영 선택 사유

불사조 기사단 : 마지막으로 남은 것을 지키기 위하여

휴튼 부부의 일기장을 발견했다.

한동안 상실에 빠진 휴는 휴튼 부부의 남은 흔적들을 정리하기 위해 저택으로 향한다. 그 사람들의 마지막을 기억할 수 있는 건 이제 나 밖에 없으니까. 흐트러진 머리칼을 정리할 정신도 없이 휴는 걸음을 옮겼다. 서재에 들어와 손에 닿는 서랍장을 열었다. 낡은 일기장이 보였다.

주인님과의 별거 이후, 아가씨의 표정이 많이 우울해 보인다. 그래도 아버지라고, 주인님이 오시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듯 했다. 조금 더 찾아뵈어 주시면 좋겠는데... ..

아가씨가 호그와트에 입학한다. 바쁜 주인님을 대신하여 남편과 함께 정거장을 향했다...

아가씨가 처음으로 붓을 잡았다. 그 누구도 시킨 적이 없는데... 재능이 있으신 것 같다.

아가씨의 재능을 드디어 주인님도 알아보신걸까. 벽화를 보신 이후 저택을 방문하는 빈도가 부쩍 늘었다. 그때마다 아가씨는 굉장히 행복해 보였다...

이런 저런 이야기가 담긴 일기. 간간히 휴튼 씨와 다툼 일이라던가, 시답잖은 잡담들이 섞여있긴 했으나 대부분은 휴의 이야기였다. 사라진 내가 걱정이 된다던가,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던가, 뭐라도 해보려고 아등바등하는 내가 안타까우면서도 기특하다던가... .. 그런 이야기들이 가득이었다. 한참 페이지를 넘기던 휴는 어느 한 페이지에서 손이 멈춘다.

... .. 오래간 남편과 나는 아이를 보지 못했다. 허나 아가씨가 계시니 아이에 대한 욕심은 나지 않는다. 배 아파 낳은 아이는 아니지만 우리는 아가씨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 정말 아가씨께서, 휴만 괜찮다면,
너를 입양하고 싶다고 언젠가는 말해보려 한다.
기회가 올까?

낡은 일기장에 하나, 둘 물자국이 번진다. 서랍 안에서는 휴에게 건네지 못한 입양서류가 보였다. 물려오는 감정을 추스르지 못한 휴는 제 심장계를 부여잡고 울음소리를 삼켰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다. 그제야 깨닫는다. 나, 사랑받으며 살았구나. 이런 사랑을 받았는데 감히 삶을 포기할 순 없었다.

스물 셋, 휴 버밀리온은 불사조 기사단으로서 전쟁에 참전한다. 존재의 태생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무엇이 되었든 중요한 것은 인간의 마음임을 이제 휴는 알고 있다. 그런 깨달음을 주었던 그들을 기리기 위해서, 언젠가의 나의 미래였을지도 모를 행복을 그리워 하며 휴는 지팡이를 들었다. 그간 받아온 사랑에 답하고 싶었다. 그 모든 것들에도 불구하고 여즉 살아가고 있다고. 살아가야 할 이유가 되어준 당신들을 나 또한 사랑하고 있다고.

휴는 오늘도 돌아오지 않을 과거에 수많은 마음을 바친다.

모든 것을 앗아간 순리에 굴복하다 : 죽음을 먹는 자

휴튼 부부의 일기장을 발견하지 못했다.

휴튼 부부의 흔적을 정리한 이후, 그나마 의지하던 이들마저 잃은 휴는 모든 것을 단념하게 된다. 상실감에 매일같이 술을 들이 붓는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솟던 명성이 천천히 고개를 떨군다. 거머쥔 것들을 붙들 의지조차 없는 삶을 지내던 스물 다섯, 술기운에 휴는 버밀리온을 찾아간다. 남은 것은 빌어먹게도, 버밀리온이라는 이름 하나 뿐이었으니까. 그래서 애원했다. 제발요, 아버지... .. 돌아가게 해주세요.

네가 저지른 짓에 대한 책임은 져야지. 그 일 이후로 버밀리온의 명예가 땅에 처박히지 않았냐. 눈물을 떨구던 휴가 입을 연다. 그러게요. 그냥 주제에 맞게 주어진대로 살았으면 됐을텐데 왜 그랬을까요. 한참 말이 없던 잭은 이윽고 입을 연다. 조만간 불사조 기사단들과의 전투가 있을거다. 전쟁에는 스테판도 참전하기로 했으니, 너도 그때 전쟁에 참전해라. 물론 스테판이 참전한다는 것은 거짓이었다. 허나 휴는 그것을 덤썩 받아문다. 진실인지 아닌지 판단할 정신 따위가 존재할리 만무했다. 아무래도 상관 없었다. 이제 와서 중요하게 뭐가 있겠나. 흐린 웃음소리를 흘리던 휴가 답한다.

예, 아버지. 원하시는 대로 해야죠... 그럼요.

기숙사 반장 신청 여부

○

수장 및 부수장 신청 여부

수장 ○

부수장 ○

오너란

오너 나이

02

오너 아이디

@tkfadlwhwrkxek

